

### 지상 법석

# 살아있는 지금이 참선의 시간

알아 보는 것, 이것이 참선인 것입니다.

참선은 화두만 붙들고 앉아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화두란 것에만 붙들려 있으면 운동선수가 싸움질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기고 지는 것을

#### 자신을 반조하라

뛰어 넘은 생각. 그 한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 참다운 운동하는 자세이듯 참선의 바른 자세도 화두에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면목을 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만 하나 옮겨 들고 있으면 그것이 부처되는 길입니다. 또 한 생각을 잘못 들고 앉아 있으면 한낱 중생의 길을 벗어 날 수가 없습니다.

옛 조사스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각 바로 갖고 들어 가는 것이 뭐 그리 어렵냐고 말합니다. 한 생각 바로 들어가는 것이 부처라 했으니, 32상 80종호를 다 갖춰야 부처가 아니고 한 생각을 바로 갖춤으로 해서 부처의 열매를 따먹는 것이니 한 생각을 놓쳐서는 아니 되겠습니까.

그것은 시일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지만 나를 돌이켜 보는 반조의 순간은 눈 깜짝할 사이가 아닙니까. 한 생각을 다 잡아 지니고 나를 비추는 일을 얘기

금강경에 나오는 한 말씀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악전제상비상 즉견여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형상을 형상 아닌 것으로 보면 바로 여래를 보는 것이라 뜻인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이 부분이 이상해서 많이 생각 했는데 '형상을 형상 아닌 것으로 보라'는 것은 곧 집착을 버리란 뜻입니다.

형상을 형상 아닌 것으로 보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결국 그 말이라는 형상에 집착되어 그 미를 뜻하는 것입니다. 형상을 보면서 형상이 아닌 것을 보려면 형상에

사리불 존자가 나무 밑에 앉아 참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을 유마가 사가 바빠 지나고 있었죠. 꼼짝도 않고 앉아 있는 사리불을 보고 유마가 그냥 지나갈 리가 없었지요. "여보시오, 사리불 존자"하고 부르니까 그 제사야 사리불이 눈을 뜨고 "아니, 처사님 어디를 가십니까"하고 인사를 했

#### 참 불자의 삶

졌지요. 유마는 "존자님, 참선 하느라고 지나가는 사람도 못보고 도대체 참선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하고 물었

는다고 해서 모두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를 믿는다는 것이 그저 뭐든지 초월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 한 노파가 있었습니다. 그 노파는 아들도 딸도 모두 출가해 스님이 됐고 자신도 열심히 절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노파가 길을 가는데 앞에서 서 있던 소가 앞구리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럴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노파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절에 나가 부처님을 믿었는데 소에 밟히다니 예끼 이제는 절에 다니지 않을테다'라고 했습니다.

잘 되면 좋아하고 못 되면 싫어 하는 것은 중생의 마음입니다. 잘 되고 못 되고를 구별해 보지 않아야 합니다. 그 분별심이 있어서는 바른 길에서 참선도 못하게 되고 바른 불교를 믿지도 못하게 됩니다.

형상을 보지 말고 형상 아닌 것을 보라고 앞에서 말씀하신다면 형상도 형상 아닌 것도 봐서는 안됩니다. 그것을 잘못 나눠놓고 보느니 안보느니 하면 아무것도 안되는 것입니다. 집착입니다. 그 집착의 무거운 짐을 벗지 못하면 끝내 밝은 마음을 못 얻게 됩니다.

집착 속에 헤매는 사람은 절대 자신을 비춰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노파가 소에 밟혔다고 절에 안나가면 어

그 노파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절에 나가 부처님을 믿었는데 소에 밟히다니 예끼 이제는 절에 다니지 않을테다'라고 했습니다. 잘 되면 좋아하고 못 되면 싫어 하는 것은 중생의 마음입니다.

## 「이렇꼬」등 천칠백 공안이 다 무엇입니까 살림살이 크건 작건 갖출 것은 다 갖춰야

가 커서 어른이 되고 늙고 죽어가듯 없이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내는 나의 실제 모습, 진면목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나서는 대승을 실천해야 합니다. 옛날 삼장법사가 인도를 왜 갔습니까. 도를 구해서 인도를 갖고, 그 목적은 바로 대승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소승은 나 혼자만을 구하는 도리이고 대승은 나와 동시에 내 이웃을 같이 구하는 도리입니다. 물론 내 자신이 부처님 마음과 같이 되어야 하지만 나 혼자 부처님 마음같이 되고나서 아들, 딸과 이웃은 다 어쩌란 말입니까. 모두가 부처님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소자연이 완성돼야 대자연이 완성되는 이치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대자연에 속한 인간이 누구는 완성되고 누구는 완성되지 않았는데 대자연이 어떻게 완성될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대승의 수선이 필요하고 우리 불자들이 그것을 해내야 하는 겁니다.

집착하지 않으면 됩니다. 집착 하지 않으면 형상 아닌 것은 저절로 보여 집니다.

「무,라거나 「이렇꼬,라거나 하는 천칠백의 공안이 다 무엇입니까. 집착을 끊으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참선의 길을 바르게 걸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스스로를 비추는 일이 필요합니다. 어두운 곳에 앉아서 내 얼굴에, 내 옷에 무엇이 묻었는지 보입니까. 밝은 곳에 앉아 있어야 내 얼굴에 묻은 흙과 내 옷에 묻은 오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스님 화두를 생각하면 알아 잘 안되고 일을 하려면 화두가 생각나지 않으니 어쩌면 좋습니까」라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그것은 길을 잘못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참선의 길을 잘 못 찾아온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참선하라고 하셨지요. 여기서 한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습니다. "아무것도 생각 않고 손을 발을 하나 꼼짝 않고 그렇게 앉아 있는 것이 참선이요" "아휴, 안타깝습니다. 이 세상에서 탐진치를 나타내지 않는 것이 참선이요" 그렇게 말하고는 유마는 가던 길을 가버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탐진치를 내지 않고 사는데 참선이라니. 이 뜻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탐진치를 나타내지 않고 사시겠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환히 비춰 보는데 더러운 것이 묻었으면 그것을 빨리 닦아내서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비춰보는 삶은 언제나 깨끗하고 결국은 탐진치를 나타내지 않는 참선, 유마가 사리불을 집착한 참선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나를 비춰보는 사람이 참선을 제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행복하고 알도 잘하고 또 돈도 많이 받게 됩니다. 불교를 믿

편한 말입니까. 불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참선의 길 대승적 수선의 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모습을 스스로 비춰보며 사는 것이 불교요 참선이요, 대승적 수선인데 사람들은 부처님이 신장들이 조사들이 깨닫게 해주고 복도 주고 그러는 것이 불교인 줄 알고 있으니 문제입니다.

앞에서도 누누이 강조 했듯이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어리석게 비춰지면 지혜롭게 살려고 정진해야 하고 티가 묻었으면 닦아 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밝고 깨끗한 자신의 모습을 지켜 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른 참선의 길이니 여러분은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그 길을 안내해야 합니다. 인간의 일입니다. 어김없이 진행되는 대자연의 순리처럼 인간, 즉 소자연도 어김없이 이루어 줄 것이 그렇게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과학속의 불교 ② 불교속의 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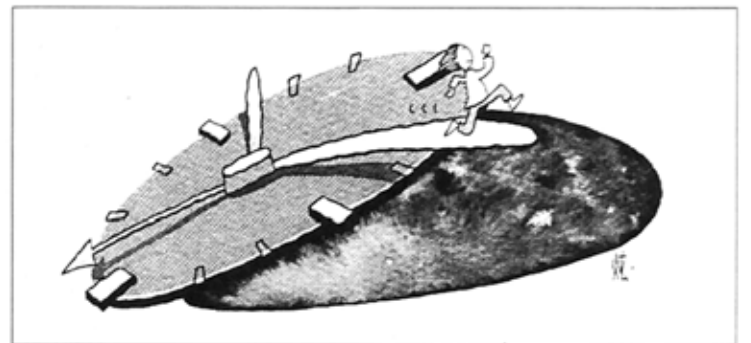
#### 시간과 공간

#### 김성규

불교에서 근본으로 삼고 있는 깨달음이란 어떤 것인가?

깨달음이란 문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과연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부처님은 무엇을 깨쳤는가 부처님의 고민은 왜 늙고 병들고 죽어나 하는 문제였으며, 이 고민으로부터 존재본질에 대하여 깨친 것이다. 왜 늙고 병들고 죽어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시간과 공간에 대한 문제로 직결됨을 알 수 있다. 결국 시간적으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며, 공간적으로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형상을 유지하지 못하고 허물어져 버리는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3법인중 제행무상(諸行無常),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생상되었다가 소멸되며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며 영원한 것은 없다. 라는 것은 공간적인 관

아버지 : "나는 지금 지구에 대해서 시속 2,000Km를 유지하고 있다. 너도 그렇게 하려 무냐."  
아들 : "알았습니다."  
???  
이 우주에 정지된 기준점으로 사용할만한 천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지구는 자신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돌면서 태양 주위를 돈다. 태양과 태양계는 태양계가 포함되어 있는 은하계의 중심을 축으로 하여 돌고 있으며,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움직이고 운동하고 있는 것이다. 얼핏보기에 아주 혼란된 것 같이 천체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자세히 관찰해보면 서로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길을 가고 있음을 알게 된다. 즉 모든 천체는 서로 상대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점이 관해서 단 하나의 천체도 예외는 없으며, 움직이고



#### 우주에 영원 불변한 것은 없어

점에서 존재본질을 바라본 것이다. 바로 부처님께서서서 시간적으로 존재본질을 꿰뚫어 보셨던 것이다.

우리 인간의 인식의 바탕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표현하자면 시간과 공간이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늘을 쳐다 보고 있어도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며, 금성이나 화성과 같은 혹성들도 항상 일정하게 태양의 주위를 돌고있다. 이와같이 일정하게 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우주의 흐름이 우리들이 느끼기에는 시간이라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변화는 시간이라고 불리는 별개의 차원으로 묘사되었으며 시간은 물질세계와 아무런 관계없이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 미래로 일정하게 흘러가는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였다. '절대적이고 진정한 수학적 시간은 그 자신의 본성에 의하여 저절로 외부의 것과도 관계없이 한결 같이 흘러간다.'라고 인식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은 시공간에 대한 인식이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된다. 먼저 우주여행을 하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자.

아버지 : "야아, 너의 우주로켓 속도를 시속 2,000Km로 유지하렴."

아들 : "아버지, 무엇이 대해서 그렇게 하란 말씀입니까? 지구에 대해서 인가요? 아니면 큰곰별자리에 대해서 인가요?"

있는 어느 한 천체에게도 특권은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아버지(대한로켓)와 아들(민국로켓)이 타고 있는 두 우주로켓의 상대속도가 240,000Km라면 대한로켓에 타고 있는 아버지가 민국로켓에 타고 있는 아들의 시계를 보면 자기 시계 보다 약 30분 늦게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버지의 시계가 1시를 가리킬때 아들의 시계는 1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상대속도가 크면 클수록 아버지 시계와 아들 시계의 시간차는 커지는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 시계가 각각 상대방에 놓은 것 같이 보이는 이유는 빛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다.

상대를 이전에는 시간은 시간대로 공간은 공간대로 존재하였는데, 상대론에서는 시간과 공간은 분리될 수 없는 실체로서 동장하게 된다. 결국 관찰자와 관찰대상을 동시에 인식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상대론의 위대한 점은 바로 시간과 공간이 기하학을 인식하는 어떤 그물구조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 인간 정신의 인식의 소산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시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영원한 것이 있을 것 같고, 공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절대적인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시간과 공간을 분리할 수 없는 실체로서 동시에 인식하니까 이 우주에는 영원한 것도 절대적인 것도 없는 것이다.

(영남대 의대교수)

#### 서해 제일 영산 군자봉 지장기도 도량

## 영각사 지장성지 전립불사 모연문

불교는 인연을 말하는 종교입니다. 인연이 있는 곳에 법원이 있고 법원이 머무는 곳에 소망하는 모든일이 성취되는 부처님법은 구원의 신비이며 자비의 가치이라고 일컫어 왔습니다. 군자봉 영각사에 수 많은 불자들의 인연과 자복을 필요로 하는 때가 왔습니다. 특히 군자봉은 신비한 영험이 자주있어 전국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법원하며 소원을 이루는 영산(靈山)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험한 성지(聖地)에 국내 유일의 지장대왕회 기도도량이 된 대웅전 및 지장대불을 모시는 대각 불사를 발원 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계방(諸方)의 불자제현께서는 지의 정성을 심분해당하시고 수화동참(誦寫同參)하시어 이 대각불사가 원만히 성취되고 모든 사람들의 삶에 부처님의 광명이 오게 빛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38년 7월

불자여, 나의 몸과 가정이 어렵고 힘들때 마음속 부처님께 보시공덕으로 극복하라!

#### 불사봉참구좌

우체국 : 10397-012049  
통일 : 211063-51-022064  
국민은행 : 247-25-0004-422  
상업은행 : 313-04-106489  
신한은행 : 610-01-004955  
계좌번호 : 영각사

사찰에서 필요한 체계적인 사찰중우편리의 전산화 보리수 프로그램을 20년에 걸쳐 수정하고 보완하였습니다. 필요하신분은 본사실에서 무료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영각사 주지 서현범 합장



#### 소년소녀 가장 돕기

### 대행스님 부산대법회



#### 참인간으로 사는 길

부처님게선 중생의 숭배를 받고자 오신 게 아니라 중생에게 '마음을 깨달아 부처 되는 길'을 가르치고자 오셨습니다. 마음, 그 무궁무진한 대자유의 세계로 여러분의 일상을 이끌어 주시고자, 여기 대행스님의 법좌를 마련하오니, 두루 동참하시어 충만된 삶, 영원한 자유인으로 나아가는 법열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 장소

KBS 부산홀 (남천동)

#### 일시

불기 2538년 11월 13일 (일) 오후 2시

####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신도회

#### 후원

부산불교연합회 · 부산불교신도회 · 부산불교거사협회  
부산불교교실연합회 · 대한불교신문 · 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 부산 불교방송 · KBS 부산방송국

지원장혜도  
신도회장 이하경 합장  
박성빈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 선원 부산지원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중리 522-1  
전화 (051)402-7077 / 팩스 (051)403-1077  
포교실 465-1530